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문 앞에 게시된 95개조 반박문은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서막이 되었다. 수도사 출신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순례의 과정을 통해 기성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개혁적 당위성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짧은 루터의 외침이 있는 지 벌써 484주년이 되었다. 16세기 당대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 개혁적 외침들은 한 시대를 깨우며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교회에 역동성을 부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으면서 어느 순간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위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흐트러진 개혁의 옷매무새를 단장하며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챙기고 겹혀히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16세기 종교개혁의 'Sola Scriptura' 원리와 그 현재적 의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문 앞에 게시된 95개조 반박문은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서막이 되었다. 수도사 출신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순례의 과정을 통해 기성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개혁적 당위성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짧은 루터의 외침이 있는 지 벌써 484주년이 되었다. 16세기 당대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 개혁적 외침들은 한 시대를 깨우며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교회에 역동성을 부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으면서 어느 순간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위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흐트러진 개혁의 옷매무새를 단장하며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챙기고 겹혀히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1. 서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문 앞에 게시된 95개조 반박문은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서막이 되었다. 수도사 출신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순례의 과정을 통해 기성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개혁적 당위성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짧은 루터의 외침이 있는 지 벌써 484주년이 되었다. 16세기 당대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 개혁적 외침들은 한 시대를 깨우며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교회에 역동성을 부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으면서 어느 순간 개혁이라는 단어조차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위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흐트러진 개혁의 옷매무새를 단장하며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챙기고 겹혀히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루터와 칼빈의 'sola scriptura' 사상을 16세기 역사적 정황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그 개혁적 정신이 현대의 기독교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 2. 'Sola Scriptura'의 역사적 기원과 마틴 루터의 성경관

### 1) 그 역사적 기원

사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채교회 문에 게시할 때만 해도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sup>1)</sup> 다만 95개 조항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관점이 교회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sup>2)</sup> 성경적인 입장에서 있었다는 점이 교권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다.<sup>3)</sup>

1518년 루터가 추기경 카예탄과의 논쟁을 통해 교황의 권위가 교회 회의나 성경 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직면했을 때 그 자신은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었고,<sup>4)</sup> 오히려 교회 회의와 성경의 권위를 변호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런 외중에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수용한 교회의 전통일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였다.

1519년 라이프찌히 논쟁(The Leipzig Disputation)에서 루터는 에크박사의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적 입장에 반대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반박하였고, 카예탄과의 논쟁에서는 인정하였던 교회 회의에 대하여 그 오류의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Solus Christus와 Sola Scriptura

1) Heiko, A.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1992), 41.

2) Steven Ozment,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London 1993), 17.

3) Henry Bettenson (ed.), *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1992), 186

4) Oberman, *The Dawn*, 42.

5) 존 딜렌버거, *루터 저작선*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이형기 역, 90.

의 정신을 확립할 수 있었다.<sup>6)</sup> 그런 견지에서 에크 박사가 루터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자.

루터는 베드로가 사도 중에 으뜸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이러한 교회의 관례가 신적 권리에 입각하지 않고, 인위적인 것에 의존하였다고 천명한다. 그는 교회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를 기반으로 세워진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교회의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 기초를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들로만 구성된 교회 회의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연옥의 존재를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7)</sup>

결국 이 논쟁을 통해서 루터는 교황권이나, 제도나, 교회 회의나 그 어떤 인위적인 판단 근거도 제거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오직 성경'의 원리를 정제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물론 16세기 이전에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며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논의도 확증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1517년 이후 전개된 논쟁들을 통해 본 원리가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나 바로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sup>8)</sup> 하지만 16세기 컨텍스트 속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논쟁이 본 원리의 역사적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 2) 성경의 삼중적 구조

성경의 삼중 구조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써의 성경, 문자화된 성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6) Oberman, *The Dawn*, 43.

7) Bettenson, *Documents*, 192.

8) Oberman, *The Dawn*, 48.

9) David C. Steinmetz, *Luther in Context* (Grand Rapids 1995), 48.

삼위일체 중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다. 성경의 권위는 바로 이런 구조에 기인한다.<sup>10)</sup>

루터가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써의 성경에 대하여 언급했을 때, 그가 전혀 새로운 입장을 개진했다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성경을 포함한 제 신조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는 중세교회의 입장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sup>10)</sup> 하지만 중세교회가 그레고리 1세 이후 신학적 전통을 부각시키고, 교황의 권위를 우월한 위치에 두었던 점, 여기에다 스콜라 신학적 전통까지 가세하면서 성경의 절대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임을 천명하면서 인위적인 권위와 전통을 배격하였다.<sup>11)</sup>

기록되어진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루터가 1520년에 기록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영혼이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음을 확고부동한 사실로 생각하자. 영혼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영혼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와 빛과 평화와 의와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영광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 생명과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게 되는 것도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영혼이 만약 어떤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말씀이 필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믿음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10) Oberman, *The Dawn*, 48.

11) *Ibid.*, 49.

12)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in 달렌버거, 97-98.

기록되어진 말씀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sup>13)</sup>

### 3) 성경과 복음

루터의 견지에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가졌다고 할 수 없었다.<sup>14)</sup> 1538년 요한 복음 강해 시리즈에서 루터는 '인간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인간일 따름이라고 강변했다. 루터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오류를 범하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할 따름이다. 그는 과장되어 말씀하지 않았고 또한 너무 과소평가 하여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부족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또한 나를 성령님과 친숙해지도록 하셨다. 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sup>15)</sup>

결국 루터의 기준은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이었다.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일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교회의 스승들인 암브로즈, 어거스틴, 그레고리, 제롬, 버나드, 베네딕트, 도미니크, 프

13) Steinmetz, *Luther*, 74.  
 14) 마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박문제 역, 44.  
 15) M. Luther, 'Liberation from Human Authority', in Iain H. Murray,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Edinburgh 1987), 31.

란시스 등과 같은 인물들이 거룩하고 고상한 인물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들도 여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들이 주장한 교리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

루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를 순종하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고리,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기타의 인물들이 주장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승인했다고 말한다. 결국 그리스도 보다 인위적인 것에 더 의지함으로 수도사들과 수녀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순례의 행위들과 성자숭배 등이 파생되었다고 루터는 주장한다.

루터는 교황이 신령한 주님의 말씀에 면죄부, 순례들, 금욕적인 규제들을 첨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고 반문한다.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루터는 교부들의 가르침이든, 교황의 명령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교리와 일치할 경우에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교부들과 기타 모든 경건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서책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앞에 가져와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그 분으로부터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날개아래 거하듯이 그리스도의 날개아래 거하라. 그 분이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겨서 먹히우리라.<sup>16)</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에 대하여 루터의 또다른 진술을

16) Ibid., 34.

들어보자.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환영할 만한 정보, 환호성,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며 말하게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헬리어이다... 그분은 죄에 묶이고 죽음에 의해 위협을 받고 마귀에 억눌렸던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유의 함성, 이러한 가슴 벅찬 소식, 이러한 기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로운 언약이라 부른다. 또한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거명하는 상속자들 사이에서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언과 같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복음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결정하였다... 죄와 죽음과 음부에 묶인 가엾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보다 더 위로가 되고 고무적인 것을 들을 수 없다. 죄인은 그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밑바닥으로부터 환호하며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사역, 죽음, 부활,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아울러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는 음성을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sup>17)</sup>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구약을 복음과 연결시키며 이 복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엮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8)</sup> 이런 구조적인 견지에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며 그 메시지이다. 결국 이것이 구원의 경험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형성한다.<sup>19)</sup>

17) 루터, '신약에 대한 서문', in 딜렌버거, 52-55.

18) 루터, *로마서 주석*, 108.

19) Steinmetz, *Luther*, 75.

## 4) 복음과 율법

루터는 이 두 주제에 관한 논의를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하여 비교적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먼저 율법에 대하여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참된 사용과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충실하게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그릇되게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행위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며 율법의 행위를 필요로 하며 우리가 율법은 선하고 유익하지만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러하다고 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한다. 율법의 적절한 사용은 첫째로 시민적인 범죄들을 재갈물리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범죄들을 드러내고 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빛이기도 하다.... 율법도 진정한 의미로 사용될 때 죄를 드러내고 진노를 불러오며 사람들을 고발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다. 이것이 율법의 고유한 사용이며,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율법은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sup>20)</sup>

곧 이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복음의 목적은 죄악의 굴레를 깨뜨리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비취주고 깨어나게 하며 위로하고 기쁨을 일으켜 주는 빛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고, 말미암아 저주 즉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축복 즉 은혜, 죄사함, 의와 영생이 그들에게 거저 주어 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인들, 아주

20) 루터, '갈라디아서 주석', in 딜렌버거, 194-195.



...가 무가치한 사람들에게도 지비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21)</sup>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여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사용과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학교들과 교회들에서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루터는 보았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순전하고 건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양자의 구별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 양자의 차이를 알게 될 때 믿음을 행위로부터, 그리스도를 모세와 모든 정치적 법들로부터 구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상태가 얼마나 황무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였다. 결국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복음은 약속에 따라 죄용서를 함의하였다.

##### 5) 성경의 명확성

루터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첫째로, 성경의 외적인 명확성으로써, 말씀의 사역과 연관이 있고, 둘째로, 내적인 명확성으로써, 마음의 지식과 관련이 있다. 그는 후자의 견지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 자체와 각 부분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하에서 마음의 지식이 밝아지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된다.

외적인 명확성에 관하여 말하면서 루터는 '그 어떠한 것도 모호하거나 애매한 것은 없으며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빛 가운데로 가져와져 있으며 온 세상에 선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21) Ibid., 195.

22) 루터, '노예의지론', in 달렌버거, 227.

성경이 그 자체만으로도 내외적으로 명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독점적인 성경 해석권에 반대하여 루터는 '성경 자체의 자기 해석'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을 해석학적 원칙으로 주장하였다.

#### 4. 'Sola Scriptura'에 대한 칼빈의 입장

##### 1) '오직 성경' 정신의 배경

위에서 언급한 마틴 루터와 같이, 칼빈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 교회 회의, 교황의 독단적인 성경해석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교회라는 이름 밑에서 무제한의 횡포를 즐겨 행하는 이 독선적인 사람들은 교회는 모든 것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관념을 단순한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만 있다면, 자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 불합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sup>23)</sup>

또한 칼빈은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를 주장했던 광신적 자유신령파(Libertins)에 대하여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sup>24)</sup>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처럼 행동했고,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유치하고 천박하다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주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23)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상 (생명의 말씀사 1993) 김종흠 등, 135-136.

24)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Leicester 1993), 169-171.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실 이들은 마치 성경 모두를 부인하는 듯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성경을 변형시킨다. 이들은 시종일관 다음의 원리를 가진다. '성경이란 본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죽이기만 할뿐인 죽은 문자들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생명을 주는 성령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버린다.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우선 이들은 성경의 단순한 의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해석을 통해 성경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로, 이들은 쓰여져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성경 안의 것이면 뭐든지 묵인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생각하고 새로운 계시들을 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sup>25)</sup>

칼빈이 지적한대로, 자유신령파들은 성령의 개념을 곡해하여 성경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칼빈이 이들을 비판하면서 '악마', '혐오스러운 신성모독', '철면피' 등의 과격한 용어들을 동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자유신령파들의 주장과 행태에 대하여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칼빈은 '우리가 독을 피하듯이 그들로부터 도망가자'라고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명백히 밝혀주시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강변하였다.<sup>26)</sup>

대체적으로, 이 두 범주의 주장이 칼빈으로 하여금 '오직 성경'의 원리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토록 만들었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성경의 기원

이 문제는 성경의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신중하

25) 존 칼빈, *칼빈의 자유주의 반박론* (솔로몬 1994) 김동현 역, 88-89.

26) Ibid., 92.

게 다루어야 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이 갖는 권위의 기원을 인위적인 데서 찾으려는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 교회나 교황 등의 권위를 넘어 그 본래의 근원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 즉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절대적인 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였다. 칼빈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7)</sup>

칼빈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기록되어진 성경에 담겨져 있으며, 이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성경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보존될 수 있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성경의 권위가 인위적인 데서 기원했다면, 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야말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교회를 우선시하고, 교회 회의가 성경을 결정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없었다면 유형적 교회의 탄생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교회는 또한 어거스틴이 한 말, 즉 교회의 권위에 감동됨이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오히려 교회의 권위를 앞세우는 실수를 범하였다.<sup>28)</sup> 이런 상황속에서 칼빈은 인위적인 기원이나 그 권위를 배제하고 성경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 3) Sola Scriptura의 원칙

객관적으로 16세기 컨텍스트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오직 성경에 대

27) 칼빈, 기독교강요 상, 135.

28) Ibid., 136-137.

한 주장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28)</sup> 첫째로, 성령의 내적 증거인데,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칼빈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그리고 어떤 역측이나 강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인 성령의 은밀한 증거를 피력하였다. 그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주는 유익한 결과를 나열할 수 있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거룩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른 모든 저작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나서 우리의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sup>29)</sup>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증거는 어떠한 이론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있어서 확증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대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칼빈은 이 양자의 결속을 말하면서 말씀이 존경과 높임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고 보았다. 이런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이 분명하게 결합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sup>30)</sup>

29) Ibid., 140.

30) Ibid., 164-165.

둘째로, 루터가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경의 자증인데, 성경은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을 준다고 했을 때, 창조주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며, 그 분의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에 갇혀 있거나 증거의 형태에 종속해 버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성경의 자체적인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은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 5. 결론: 'Sola Scriptura'의 현대적 의미

이상과 같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의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16세기라는 독특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들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삶과 신앙의 기준을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 정제된 오직 성경의 원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역사는 어제의 역사요, 바로 오늘의 역사이며, 내일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원칙과 정신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과거의 정신은 오늘의 정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직 성경의 현대적 의미를 몇 가지로 제시코자 한다.

첫째로, 이 정신은 종교개혁적 자유의 차원에서 재발견되어질 수 있다. 성경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던 전통, 인위적인 권위, 교회 회의, 인간이성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말한다.

둘째로, 이 정신은 주관주의적 함정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성경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고 시작된다.

셋째로, 이 정신은 말씀과 성령의 결속을 통해 교조적인 무능력함으로나, 환상적인 광신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균형과 견제를 가능케 한다.

넷째로, 이것은 성경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함을 통하여 안전한 테두리를 형성하여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다섯째로, 이것은 인간이성이나 경험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

여섯째로, 이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 자체의 권위에 도전해 오고 있는 세속적 이데올로기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로, 오직 성경의 정신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